

신혜선의 heyday

-권 홍(사진가, 갤러리움 대표)

사진가가 자신의 사진에 담고 싶어 하는 것은 아우라와 서사다. 한눈에 봐도 어떤 신비로운 에너지를 발산하는 아우라가 담긴 사진 그리고 사진에 담긴 대상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서사가 명확하게 읽혀지는 사진.

좋은 사진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이런 기준을 따르다 보니 동일성의 범주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재현이든 비재현이든 대부분 사진가는 끊임없이 아우라와 서사를 욕망하고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아우라와 서사를 사진에서 지워 버리면 무엇이 남을까?

짙은 화장기가 지워진 민낯이 그렇듯이, 또는 밤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드러난 도시의 한낮 풍경이 그렇듯이 화려함이 지나고 난 뒤에는 욕망으로 치장된 허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꾸미지 않은, 소소하지만 우리에게서 저마다 각자의 소중함이 배어있는 기억이며 추억의 삶 그 자체이다. 여기 그런 사진을 보여주는 이가 바로 신혜선 작가다.

화사하게 웃으며 또는 그 웃음을 꽃 뒤에 감추며 작가의 사진 속으로 들어온 인물들은 그저 자신의 삶에도 전성기가 있었다고, 혹은 지금이 전성기라고 우리에게 담담히 말을 건넨 뿐이다. 그렇기에 그녀의 사진은 화려한 대중매체에 매몰되어버린 우리의 시각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우리에게 낯설기만한 새로운 또는 먼 옛날에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감각의 경험을 요구한다.

노인이 꿈꾸는 꽃이란 자신의 가장 빛나던 순간, 즉 작가가 말하는 전성기의 다른 이름이다.

신혜선 작가의 heyday는 삶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소망을 이야기하는 듯 보인다. 그래서 작가의 마음은 꽃처럼 화사하고 긍정적이다. 그런데 패러독스는 그 꽃이 조화인 것에 있다. 언제나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이 되고 싶은 조화의 꿈과 늘 전성기이기를 희망하는 우리의 꿈이 욕망이라는 그림자로 heyday사진에 드리워져 있다.

그래서 heyday는 때로는 슬프다.